

황의조 부진에 '득점왕' 조규성 뜬다...벤투호 1옵션 바뀔까

‘K리그1 득점왕에 FA컵 MVP까지’...월드컵 앞두고 상승세
황의조는 그리스 무대 이적 후 공식전 10경기째 침묵 중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앞둔 벤투호의 최전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부동의 원톱 황의조(30·울림피아코스)가 부진에 빠진 사이 조규성(24·전북)이 떠오르고 있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시즌 그리스 무대에 새 등지를 쓴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31일 그리스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엘라다(1부리그) 10라운드 파스 라미아전 출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정규리그에선 2경기 연속 결장이다. 앞서 2군행 소문이 도는 등 최근 팀 내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진 황의조다. 벤투 감독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확실치 않 나갔을 때와 비교하면 황의조의 경기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2019년 7월 지롱댕 보르도(프랑스)에 입단

해 유럽에 진출한 황의조는 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검증된 공격수다. 지난여름 프랑스 2부리그로 강등된 보르도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한 뒤 구단주가 같은 울림피아코스로 임대 이적했다.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경기력 유지를 위해 프랑스보다 수준이 낮은 그리스행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새 팀을 찾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정규리그에선 5경기째 골이 없다. 도움만 1개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5경기를 포함하면 공식전 10경기에서 침묵 중이다. 황의조가 부진에 빠진 사이 대표팀에서 2옵션

공격수였던 조규성은 극적인 역전 득점왕에 이어 전북의 대한축구협회 FA컵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천 상무에서 뛰었던 조규성은 지난 9월 전역해 전북으로 복귀한 뒤 K리그1에서 4골 1도움을 올렸다. 특히 시즌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기록, 총 17골을 터뜨리며 주민규(제주)를 제치고 생애 첫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또 FC서울과 FA컵 결승에선 1차전과 2차전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북에 우승을 안겼다. 최근 경기력은 물론 득점 페이스를 고려할 때 국내 공격수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바로 조규성이다. 올해 초반 해도 황의조에 이은 2번째 공격 옵션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조규성이 대표팀 최전방에 서야 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번이 없는 한 조규성은 벤투호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황의조와 함께 이름을 올릴 것이 유력하다.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마지막 소집에 오현



규(수원)가 처음 발탁됐지만, 벤투 감독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2021~2022시즌 EPL 득점왕 손흥민(토트넘)이 최전방에 서는 '손톱(Son-top)' 전술이 가동될 수 있지만, 손흥민이 주 포지션인 측면에 설 때는 둘 중 한 명이 원톱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

고진영, 무서운 태국 신예 티피꾼에 세계 1위 내줬다

롤렉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 변경
신인으로 세계 1위 등극 박성현 이후 처음
티피꾼 "코스 안팎에서 배울 게 아직 많다"

지난달 BMW 챔피언십에서 부진했던 고진영(27)이 태국 출신 무서운 신예 아타야 티피꾼(19)에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랭킹 1위 자리를 내줬다. 티피꾼은 1일(한국시간) 발표된 롤렉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7.13을 기록하며 고진영(7.09)을 0.04 차로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손목 부상과 이어진 경기감각 저하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챔피언십에서 부진 끝에 기권했다. 이는 세계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2위 고진영에 이어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3위, 넬리 코다(미국)가 4위, 이민지(호주)가 5위다. 전인지



고진영 (왼쪽)과 아타야 티피꾼 (오른쪽)은 LPGA에 "세계 1위는 우리 팀과 가족, 팬, 그리고 나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골프계 훌륭한 선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며 "레전드들과 다른 선수들로부터 코스 안팎에서 배울 게 아직 많다. 앞으로도 가족과 팀, 팬, 그리고 내 조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화려하게 데뷔한 1순위 신인 키아나 스미스

여자 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슈퍼 루키...데뷔전서 21점 5어시스트 4리바운드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의 '슈퍼 루키' 키아나 스미스(23)가 화려한 국내 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예상대로 정상급 기량이었다. 삼성생명은 10월31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원큐와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85-69로 이겼다. 강유림(26점), 배혜윤(19점 16리바운드), 이혜란(11점 11리바운드) 등이 고르게 활약했다. 신인 스미스도 33분22초 동안 21점 5어시스트 4리바운드로 펄펄 날았다. 신인이 데뷔전부터 30분 이상을 소화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그만큼 임근배 감독과 팀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날 스미스는 강유림의 첫 3점슛을 돕고, 골밑슛으로 첫 득점에 성공했다. 드리블과 스피드가 돋보였다. 삼성생명의 팀 컬러에 잘 맞는다는 평가를 들었다. 스미스는 미국인 아버지 존 스미스(53)씨와 한국인 어머니 최원선(51·미국명 켈리 스미스)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제 1순위로 삼성생명의 지명을 받았다. WKBL은 부부 중 최소 1인이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 한해 동포선수 신분으로 드래프트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 루이빌대학 출신인 스미스는 미국여자



프로농구(WNBA)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 소속으로 한 시즌을 뛰었다. 데뷔 시즌 11경기에서 평균 2.6점 0.8리바운드 0.5어시스트를 올렸다. 스미스의 한국행이 알려질 때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첫 경기에서 드러났듯 스미스의 개인 기량은 이미 정상급에 가깝다. 스미스는 WKBL 진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귀화 절차를 거쳐 태극마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뉴스

골프신동 13세 안성현, KPGA 프로형들과 3번째 샷 대결

4월·9월 이어 3번째 KPGA 투어 대회 참가
2번째 대회는 컷 통과까지...내년 국가대표

골프신동 안성현(13)이 추천 선수 자격으로 오는 3일부터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에 출전한다. 안성현은 지난달 제7회 영건스 매치플레이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골프존-도레이 오픈 출전권을 따냈다. 안성현이 KPGA 1부인 코리아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중학교 1학년인 안성현은 지난 4월 2022 시즌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인 제17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 12세11개월16일로 출전하며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고 컷 탈락했다. 안성현은 지난 9월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는 13세3개월19일로 KPGA 코리아투어 역대 최연소 본선 진출(컷 통과) 기록을 달성

했다. 안성현이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 컷 통과하면 개인 통산 2번째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 안성현의 KPGA 코리아투어 역대 최고 성적은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당시 공동 28위다. 안성현은 "시즌 3번째로 KPGA 코리아투어에 출전해 기분이 좋다"며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도 컷 통과에 성공하고 지난 대회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밝혔다. 2009년 5월생인 안성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 주니어 국가 상비군으로 활약해온 안성현은 지난 7월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남자 16세 이하부와 8월 제33회 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에



서 우승했다. 안성현은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 스톤비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7회 영건스 매치플레이어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 결과 안성현은 이번 시즌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상위 6명에게 주는 내년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안성현은 김민규(22)가 갖고 있던 역대 한국 남자 골프 최연소 국가대표 기록(14세3개월)을 단축했다. 뉴스

프로축구 인천 흥시후, 10월 K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

프로축구 K리그1(1부) 인천 유나이티드의 흥시후가 10월 가장 빛나는 신예였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흥시후가 시즌 마지막 K리그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영플레이어상은 매달 K리그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흥시후는 10월 5경기에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 유나이티드와 36라운드 활약이

눈부셨다. 흥시후는 이날 선발 출전해 전반 26분 선제골을 도운데 이어 후반 12분 승리의 썬기골을 넣는 골을 터뜨렸다. 이 활약에 힘입어 해당 경기 맨오브더매치(MOM), 해당 라운드 베스트11에도 선정됐다. 영플레이어상 후보 자격조건은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1999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0시즌 이후 데뷔)이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



팀 총 경기시간 중 절반 이상에 출전한 선수를 후보군으로 한다.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뉴스

K리그 극장골 제조기 '인천'...이적시장 승자는 울산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극적인 득점을 가장 많이 한 팀은 인천 유나이티드였다. 이적시장 앞자 영입으로 이적생 득을 톡톡히 본 구단은 울산 현대였다.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올 시즌 K리그1(1부) 경기에서 터진 577골 중 후반 추가 시간(46분 이후)에 나온 극장골은 모두 49골이었다. 이는 역대 K리그1 시즌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2016시즌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만 53골이 터졌다. 2019시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52골이 나왔다. 올해 극장골을 가장 많이 터뜨린 구단은 인천이었다. 인천은 8골로 수원FC(7골), 김천 상무(6골), 수원 삼성, 울산 현대, 제주 유나이티드(이상 5골)를 제치고 관중을 가장 흥분시킨 구단으로 뽑혔다. 이적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우승팀인 울산이었다. 울산은 팀 내 다득점 1~4위가 모두 이적생이었다. 엄원상(12골6도움), 레오나르도(11골4도움), 마틴 아담(9골4도움), 아마노(9골1도움)가 모두 시즌 전이나 시즌 중에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다. 대구FC는 가장 다이내믹한 시즌을 보낸 팀이었다. 대구는 10라운드 포함전부터 21라운

드 울산전까지 구단 역사상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인 12연속 무패(3승9무)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8라운드 전북전부터 29라운드 포함전까지 12경기 동안 연속 무승(6무6패)에 그치며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올해 준우승팀인 전북 현대는 프로축구 역대 최다 원정 연속 기록을 수립했다. 전북은 7라운드 강원전부터 20라운드 서울전까지 원정 경기에서만 9연승을 거두며 강팀 면모를 과시했다. K리그1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홈 최다 무패 타이 기록을 세웠다. 대전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홈 23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수립했다. 대전은 2021년 7월 24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홈 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16승7무를 기록해 홈에서 강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대전의 홈 23경기 무패는 울산이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립한 홈 23경기 연속 무패와 일치하는 기록이다. 대전은 울산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대전은 지난달 26일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던 김천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이겼다. 대전이 내년 K리그1에서 첫 홈경기를 이기면 역대 최다 홈 무패 기록을 세울 수 있다. 뉴스